

서울 목동아파트 '완사모' 회원들의 특별한 '완도 사랑'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녹색의 땅 전남 농수특산물 직거래장터' 행사장에서 '완사모' 회원들이 전복, 김 등 완도산 수산물을 들여보내고 있다. 왼쪽부터 완도군 청산면 마늘 홍보대사인 이명주씨, '완사모' 회장 최권섭씨, 회원 장정삼씨, 김순영씨. /광필상기자 kps@

“완도 청정 수산물 최고예요”

“완도”라는 말만 들려도 귀가 쫑긋해지는 것을 보니 진짜 ‘완도 마니아’가 다 됐나 봐요.” 청정해역에 남도의 비경을 갖춘 완도. 그 완도에 꼭 빠진 서울 사람들이 있다. ‘완사모(완도를 사랑하는 사람들)’ 회원들은 서울 양천구 목동아파트 주민 3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 남도의 정과 완도산 수산물 맛에 흠뻑 빠졌다가 이제는 완도를 ‘제2의 고향’으로 둔 완도 홍보대사들이다. ‘완사모’에 완도나 전남 출신은 거의 없다. 대부분은 서울 토박이거나, 경상도·강원도·충청도 등 전국에서 물러든 사람들이다.

“꼭 짝이” 서울사람들이 아무런 연고도 없는 완도와 어떻게 사랑에 빠지게 됐을까. 인연은 지난 2003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완도군이 완도산 특산물 판촉을 위해 이 아파트 주민들을 완도 현지로 초청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들은 완도 방문을 통해 주민들의 친절과 청정해역에서 생산된 전복, 김 등 완도 수산물 맛에 반해버렸다.

다음해 완도군이 목동아파트 단지에서 수산물 판매 행사를 가졌다. 이번에는 완도를 찾았던 주민들이 팔을 걷어 부치고 완도산 수산물 판매·홍보에 앞장섰다.

‘완사모’가 정식으로 결성된 것은 지난해 9월. 서울 이 고향인 ‘완사모’ 초대회장 김병국(59)씨는 “부지런하고 인정 넘치는 완도 사람들이 좋았고, 깨끗한 서남해에서 나오는 완도 특산물을 우리만 먹기엔 아까워 도입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완사모’의 완도 사랑은 마음에서 나오는 우정으로 연결되고 있다. 한달에 한번씩 모이는 ‘완사모’ 회원들은 회비를 쪼개 모은 100만원을 지난 1월 초 완도군에 장학금으로 내놓았다. 앞으로는 완도의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 액수를 점점 늘려간다는 원대한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완사모’의 완도 사랑이 이어지자 전남도와 완도군은 이에 이들을 완도 특산물 판촉 홍보대사로 임명했다. 청산도의 특산물 마늘 홍보대사에 임명된 ‘완사모’ 총무 이명주(여·52)씨는 “우리들과 완도의 사랑은 일방적인 쪽사랑이 아니다.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

하는 쌍방향 소통이어서 이처럼 오래 이어지고 있다”며 “나이를 더 먹고 난 뒤엔 남편과 둘이서 완도에서 살고 싶다”고 말했다.

사랑하는 만큼 비판도 서슴없다. 주문한 완도산 수산물의 질이 떨어지거나 정상이 부족하면 누구보다 먼저 나서 혼을 내는 혹독한 비판자다.

‘완사모’ 2대 회장인 최권섭(59)씨는 “서울 시민들 중 타르로 오염된 전남산 수산물을 먹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완도를 비롯한 대부분의 전남 청정해역은 별정하지 않는가”라며 “우리는 변함없이 완도를 믿고 사랑한다. 그래서 ‘완사모’ 다”고 웃었다.

김중식 완도군수는 “‘완사모’야말로 전남과 완도 특산물의 진가를 서울시민들에게 알리는 제일의 홍보대사다. 이들의 완도사랑을 지역발전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광필상기자 kps@kwangju.co.kr

남도의 정에 푹 빠져 인연 판매·홍보 발벗고 나서 틈틈이 모아 장학금 기탁도

“교장선생님, 명절날 돈 받지 마세요”

촌지 관행 근절 네티즌 서명운동 ‘논란’

“교장선생님, 명절날 돈 받지 마주세요.” 인터넷 상에서 명절을 맞아 교장·교감에게 촛지 주는 관행을 없애자는 내용의 서명운동이 펼쳐지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지난 1일 네티즌 ‘고민선’은 포털사이트 다음의 ‘이슈청원’ 게시판에 ‘광주시 교장·교감에게 바랍니다-명절날 돈 받지 마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고, 서명운동을 제안했다. 서명은 네티즌 1만명을 목표로 진행되며, 4일 현재 4%인 402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아이디 ‘고민선’은 “광주에서 근무하는 제 친구들은 명절을 앞두고 ‘이번에는 얼마를 해야하지’라는 고민으로 울상”이라며 “5만원 이상 받는 건 ‘인사’가 아니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이어 “마음에서 우러나와 선물을 주고받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며 “특히 교사가 아닌 계약직이라면 더 한다”고 적었다.

이에 대한 네티즌의 반응은 다양했다. 서명에 참여한 네티즌 ‘대양’은 “부조리한 관행, 스스로 정화하지 못하면 교육희망이 없다”고 썼고, ‘mimi3019’는 “대다수 학교는 그런 일들과 무관하다고 생각한다. 잘못된 관행이 아니라 소수의 교장·교감들이 돈을 받어서 그렇다”고 밝혔다.

자신을 경기지역 교사라고 밝힌 ‘정신차려’는 “교장·교감에게 인사하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라며 “달고 적음의 차이지만, 광주에서 이렇게 암암선언하고 촛지 근절을 위해 애쓰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적었다.

이에 대해 네티즌 ‘박상철’은 광주시교육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촛지 근절을 위해 암행감찰의 조직과 방법을 개선하고,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는 방법으로 실효성 있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교사와 시민단체 회원이 포함된 감찰반을 꾸려 교내에서 근접 감찰하고, 자택 우편물을 조사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부장판사 이상 고위법관 오늘 인사

법원장 이동 폭 커질 듯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고위법관 인사가 5일 단행된다. 특히 대법원 정 기인사를 앞두고 4명의 법원장이 잇따라 법복을 벗을에 따라 법원장의 자리 이동이 예년에 비해 커질 것으로 보인다.

4일 대법원에 따르면 박승하(사법연수원 3기) 서울고등법원장과 이주홍 서울중앙지법원장(연수원 6기)이 이날 오전 사임했다.

정년을 1년 앞둔 박 원장은 “후배 판사들에게 길을 터주기 위해 사직을 결심하게 됐다”며 갑작스런 사직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달에는 권남혁 부산고등법원

장(연수원 3기)과 이호원 서울가정법원장(연수원 7기)이 사직서를 제출해 대법원의 정 기인사를 앞두고 사임한 법원장은 4명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이번 인사에서 법원장들의 이동 폭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때은 광주고등법원장과 김판재 광주지방법원장도 자리를 옮길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럴 경우 전주지법과 제주지법원장들의 연쇄적인 자리이동도 예상된다. 한편, 부장판사 이하 법관의 인사는 오는 14일 이뤄질 예정이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 도심 편의점 강도 일주일새 3건

광주 도심에서 일주일 사이 3건의 편의점 강도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 3일 새벽 4시50분께 광주시 서구 화정동 M편의점에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 2명이 침입, 종업원 김모(여·23)씨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 20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앞서 지난 2일 새벽 3시30분께에는 북구 각화동 S편의점에 2인조 강도가 들어와 종업원을 협박해 3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도주했다.

또 지난달 28일 밤 10시30분께에는 북구 두암동 F편의점에 동일범으로 추정되는 2인조 강도가 3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났다.

경찰은 범인의 인상착의가 170~175cm의 키에 20대 초·중반이라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된데다 범행 수법이 비슷한 점으로 미뤄 동일범의 소행으로 보고 편의점 주변을 중심으로 비상근무에 나서는 한편 동종 전과자를 상대로 탐문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중형기자 gilee@kwangju.co.kr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 가능

앞으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국가에서 10년간 관리하게 되며, 청소년 보호자들이 성범죄자의 사진·나이·주소·직장 등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가 가능해진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4일 이러한 내용의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시·군·구 지역 내 청소년 보호자들과 청소년시설 및 교육기관의 장은 관할 경찰서에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범죄 후 10년간 ▲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등 청소년 시설 ▲유치원·학교·학원 등 교육기관 ▲아파트 경비원 ▲체육시설에 대한 취업이 금지되며,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단순소지한 경우라도 처벌받게 된다. /연합뉴스

광주 제1민방위대... 전립선 비대증-KTP 레이저... 남성수술클리닉, 여성 요실금 수술... (062)233-5119

나원침 (7426) 김중두



다 좋은 건데... KCC (주) 금복시스템 개인주택, 아파트 발코니 신규사시... (02) 3445-0943

“외상 안준다” 우유 절대 ‘덜미’

○단골 마트에서 외상거래를 해주지 않자 우유 한 개를 주인 몰래 들고 나온 50대 주부가 절도 혐의로 경찰서행.

○4일 광주 남부경찰에 따르면 임모(여·53·광주시 남구 방림동)씨는 지난 3일 오후 8시30분께 자신의 집 인근 D마트에서 1천ml짜리 우유 한 개(1천800원 상당)를 외상으로 구입하려 했지만, 주인 김모(49)씨가 이를 거부하자 몰래 가져갔다는 것.

○김씨는 “임씨가 2만7천원 가량 밀린 외상이 있어서 안 된다고 했더니 우유를 몰래 가져가 신고한 것”이라고 진술했으며, 임씨는 “집 근처에 사는 게 두 마리가 너무 예뻐서 우유를 주려고 했던 것”이라며 황실수설.

○경찰 관계자는 “우유 한 개 때문에 신고한 가게 주인이나 이른 저녁부터 술에 취해 물건을 훔친 주부나 똑같다”며 혀를 끌끌.

/광필상기자 kps@kwangju.co.kr

즐거운 명절 ·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주)버원건설 TEL (062)525-4400